

150개 학교에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

도교육청, 내년 2월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 구성원 간의 모임과 소통의 공간인 학교자치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활성화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자치 복합공간을 조성, 교직원·학부모·학교

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회의, 토론 상담 동아리 및 공동체 생활과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해 학교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방침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 이후 단위학교 내 교무회의 및 자치기구 활성화 등 참여적 의사결정 문화 정착

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무회의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등을 위한 전용 협의공간이 미비해 도서실, 교실 등을 빌려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150여 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대상학교 선정 ▲예산지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한 공간 구성 ▲리모델링 공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치 복합공간 조성이 학교 내 공론 활성화와 참여적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간이 바뀌면 그 곳의 에너지도 바뀌는 만큼 학교를 둘러싼 급격한 상환변화에 대응하는 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대학혁신지원사업 '최고 등급'

전주대, 1 유형서 2년 연속 'A등급' 획득

전주대학교(총장 홍순직)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A등급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주대에 따르면 2018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사업에 전북지역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이래 3년간 약 15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대학자율혁신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했으며, 전체 사업기간 동안 최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자율개선대학) 지원 대상 131개교를 대상으로 2차년도 사업 및 3차년도 종합성과 등을 토대로 정성·정량평가로 진행됐다. 전주대는 학생 성공이라는 대학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프레임워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양한 교육·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 가장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역 기반 특성을 고려해 혁신지원사업 목표를 학생성과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설정하고 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생성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교육지원체제 구축, 학생

배움중심 수업혁신 및 학생주도형 진로설계, 가치 공유형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등 그 성과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홍순직 총장은 "교육과정 개발 교수학습지원, 학생성공지원을 통해 전주대만의 교육혁신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2022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서는 학생, 교직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측면을 모두 향상시키고 학생과 지역사회, 국가가 만족하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영성·인성·지성을 갖춘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2017년 교육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18년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2019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21년 14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인공지능, 실시간데이터 2개 분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본제정지원대학'에 선정되는 등 교육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은성 기자

학교-마을지자체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 비전대학교 행복기숙사에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단 위원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시·군청 담당자, 마을교육공동체, 교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마을발전-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삶이 곧 삶이 되는 교육을 위해 무엇을 협력해야 하는지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추진단이 지역의 교육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민·관·학 교육협력으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거버넌스(위원회, 지원단, 추진단)를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부안여중, 70년 불려온 교가·교명 변경

내년에 '남주중학교' 로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부안여자중학교(교장 황의장)가 새로운 학교 운영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남주중학교로 새롭게 교명을 변경하고 교가 또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교가는 1953년 개교 당시 학교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고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창작됐다.

부안 출신으로 한국 현대 시에 독보적인 위치를 굳혔던 '신석정' 시인이 노랫말을 한국 가곡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김동진 선생이 곡(曲)을 붙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남녀공학에 기존 교가가 맞지 않는 점과 작곡자 김동진의 친일 논란 등 도교육청의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학교 문화 개선 사업에 따라 교가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새 교가는 부안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며 학교 교육목표를 지향하는 가사와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 학생들이 부르기 쉽고 호응도가 높은 곡이 될 수 있도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작사가와 작곡자는 사회적인 명망이 높은 분으로 작사는 현대 시인의 거장 안도현 시인이, 작곡가는 전북대학교 음악과 이준복 교수가 맡았다. 작사가 안도현 시인은 "평소에 변산반도를 비롯한 부안의 풍경에 매료돼 40년을 전라북도에서 생활했다. 새로 출발하는 남주중학교의 교가를

쓰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황의장 교장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사업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 더 나은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녀공학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다문화가정 학생에 '부모나라 언어 맞춤' 학습

베트남어·중국어·일본어 등 이중언어 강사 일대일 언어지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부모나라의 언어 학습 기회를 제공기로 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강사단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이틀 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2021학년도 다문화 부모나라 언어지원 강사단 연수를 가졌다. 이는 학생들의 언어교육을 담당할

강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문화 이중언어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과 이미지 메이킹 △이중언어 예방 교육 △사례를 통해 본 이중언어 교수법 △이중언어 강사 활동시 유의 사항 등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이중언어 강사는 베트남어 12명·중국어 10명·일본



어 3명 등으로, 지난 9월 초 신청을 통해 선정된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들과 일대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년연속 'A등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II 유형)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통해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43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차년도 연차평가 점수(70%)와 1~3차년도 종합평가 점수(30%)를 반영해 최종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는 학생중심대학과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4대 발전전략 및 3대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32개 세부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 결과 전공과 교양 등의 자율성과 성과 상승과 교수학습지원의 혁신을 통해 학생지원과 학생지도 시스템의 질적 고도화를 달성했으며, 데이터 기반의 교수-학습 지원체제 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함으로써 대학혁신지원사업 과제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계한 대학의 자율혁신을 강화했다.

남천현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역량을 집중한 결과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와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또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현장중심 高소득 사업

진안농협 중점 추진사업

- 현장중심 高 소득사업
-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해결사업
- 소규모 하우스나 시설, 텃밭, 공터, 짜투리 땅을 이용한 일거리 창출과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젊은 농가들은 연 5천만원 ~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제공
- 소규모, 소량 농산물도 소포장 작업 후 공판장 출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진안농협협동조합

□ 대상 : 소작농, 고령농, 귀농·귀촌 부농을 꿈꾸는 농가